

# 더민주 지지율 뒤집기... 국민의당 대세론 굳히기

야권 지도부 공식선거운동 개시 첫 주말 일제히 호남행

‘야권 적통’ 경쟁속 텃밭 표심 잡고 수도권 공략 포석  
김종인·안철수 총출동...광주시당 오늘 후보 출정식

호남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주말 나란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다. 수도권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는 새누리당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지역 방문으로, 선거 초반 호남 민심을 잡아 야권 적통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공통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호남 민심이 수도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수도권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야당은 연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통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야권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더민주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31일) 직후인 ▲다음달 1일 전북 ▲2일 광주 ▲3일 제주로 이어지는 2박3일 일정으로 호남과 제주를 방문, 지원유세를 하며 더민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일주일 동안 두 차례나 광주를 찾은 것은 야권표심의 기저대로 인식되는 광주의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의 지난 29일 광주 선거대책위원

회 출범식에서 ‘8석 석권’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여론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 전멸’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등 선거 초반 판세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등 지도부도 ▲다음달 2일 전남·북 ▲3일 광주를 찾는다. 광주와 전남에서 정당지지율이나 지역구 후보별 지지율 모두 더민주보다 위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호남대세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선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노원병) 선거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얼굴로서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러 다니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선 (더민주와 비교해) 확연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며 “다만 우리 후보자들이 신인이다 보니 당 지지율과 후보지지율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일치시키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50% 수준인 호남의 정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



“투표가 경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경기 국회의원·후보자 연설회’에서 출마 후보자들과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려 호남을 안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는 3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권 후보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더민주 광주시당의 슬로건은 ‘시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진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출정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의 인사말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용섭 광주 공동 선대위원장의 선거 기조 발표, 후보자들의 ‘유권자들에

게 드리는 약속’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승리는 광주 시민의 승리’를 주제로 출정식을 연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야권재편! 정권교체! 광주 시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시민 찬조연설을 시작으로 김동철 광주 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공동대표의 인사말, ‘희망의 풍선날리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필승 다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총선에 나서는 수도권 후보들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승리를 위한 수도권 후보 출정식’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안개속 갈 길 잃은 우리 국회 보는 듯



김은영

‘그림 생각’

(149) 안개

스스로 사대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선진 외국이라면 어떨을까?” 하며 자주 검주어 보곤 한다. 그럴 때면 나 자신 어쩌면 뻣속 깊은 사대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길으로는 민생과 경제와 국민을 내세우면서 속마음은 오로지 국회에 입성하려는 권력의지만 가득 찬 후보들과 어지럽게 이합집산하는 정당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로 고개를 돌려본다. 인간사 어디나 마찬가지로 으나 그래도 ‘공공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를 뽑은 몇몇 선진 나라는 언제나 부럽기만 하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1840~1926)가 그린 안개에 싸여있는 것 같은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림을 보니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겹쳐진다. 작가의 의도가 아니어서 다소 억측이라 여겨지긴 하겠지만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상징’인 영국 국회의사당이 뿌연 안개 속에서 실루엣만 드러낸 것이 마치 갈 길 잃은 우리 국회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모네의 ‘런던의 의회건물, 폭풍우



모네 작 ‘런던의 의회건물...’

치는 하늘’은 그림의 소재에 대한 관심이 대기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감을 보여준다. 언제나 주제를 다룬다. 인식, 비전, 빛의 문제에 매달렸던 모네는 의회의 덩치 큰 건물과 저 멀리 보이는 다리보다도 폭풍의 변칙임 속에 갈라져 사라지고 마는 빛을 화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초기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유래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20세기 미술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네지만 당시에는 살롱들이 거부하고, 비평가들은 비난했고, 대중은 야유했다.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달라져 가는 빛의 효과들을 추적하고자 했던 모네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인상을 살려 표현할 수 있었기에 순간과 영원의 양극을 그림에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소신을 끝까지 밀고 갔던 모네 같은 인물이 그리워지는 시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기호 3번은 국민의당입니다”

정의당과 헛갈린 유권자 많아 홍보 고심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원내 제3당으로 선거 기호 3번을 받았지만 낮은 정당 인지도에 고심하고 있다. 상당수 유권자는 ‘기호 3번’을 정의당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후보 출정식’을 연 자리에서 정당 기호가 3번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었다. 영남권 유세 지원을 책임진 이상돈 공동 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 지지기반이 약한 영남권에 ‘지역구 투표는 1, 2번을 하더라도 비례대표 투표는 3번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라고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기호 3번’을 강조하는 것은 정당인지도가 정당투표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호

남의 경우 ‘문지마 2번’으로 그동안 제야당이 최소 3%포인트 이상의 플러스 효과를 봤다는 기존의 분석도 이 같은 국민의당의 고민을 대변해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정당 기호를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호표시인 숫자가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를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선거법 150조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5명 이상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에 ‘1번’, 더불어민주당에 ‘2번’, 국민의당에 ‘3번’, 정의당에 ‘4번’의 기호가 부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 유권자도 SNS 후보 지지 호소 가능

오늘부터...전국 8만 7천곳에 선거 벽보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됨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식선거벽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음·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씩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31일 후보자 선거 벽보를 전국 8만 7천여 곳에 일제히 게시한다. 벽보에는 해당 지역구 후보자들의 사진, 경력, 학력, 정권 등이 게재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발송된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TV 토론회를 인터넷(www.tvdebate.co.kr)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TV 토론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3회, 지역구 후보자 469회,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16회 등 모두 488회가 열린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38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The 38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2016. 4. 7.(목) ~ 4. 10.(일) 4일간  
진도군 고군면 화동리 일원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닷길!!

주최: 진도군 | 주관: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진리남도, 한국관광공사